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ⅩI.

자신 스스로 한계를 정한 신앙에는 반드시 정체기가 온다

1.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우물을 더 깊게 파기

(1) 멈춤이 없는 예배 - 하나님의 속성

[요한계시록 4: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드릴 영원한 하늘의 예배를 소개한다. 하늘의 존재들(하늘의 천사, 장로, 네 생물 등)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한다. 그들의 예배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다. (거룩, 영원함 등)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피조물들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이다. 성경에 보니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들의 예배는 멈춤이 없었다. 왜 그런가? 그들이 예배할 영원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멈춤이 없었다. 예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갈망 또한 마음이 없는 영원한 샘과 같았다.

(2) 하나님을 생각하기 - 돌파의 순간

[예레미야애가 3:21-25]

- 21 그러나 마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 22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 23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큼니다."
- 24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 25 주님께서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 선지자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나 하나님은 대답이 없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선지자의 상황은 울적함과 탄식 그리고 깊은 신음 뿐이다. 조금의 희망도 없다.

이 때 선지자는 21절의 고백을 한다. '마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라고 고백한다. 바로 이 순간 돌파가 일어난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속에서 자유함을 갖기 시작한다.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속에서 자신만 보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임재의 그림자가 깃들여지기 시작한다. 그 때가 바로 '마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 하나님을 소원하며 구하는 존재이다.

자신의 모든 답답한 환경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선지자가 확보한 영적인 공간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가득하다. 그 순간 하나님을 고백한다. "한결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찬양한다. 그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찬양한다. 그리고 결국 흑암 중에 소망을 본다.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환경에 있던지 '마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마음의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압도 당해서 우리가 영



적으로 숨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3) 하마롬 -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

근심과 걱정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한다. 예레미야애가의 말씀을 보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선지자의 모든 고통과 근심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세상일에 사로잡혀 있게된다. 그래서 평강이 깨진다.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 근심'으로 깊어진다. 희망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어떤 의지도 없다.

마음의 눈이 영원한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근심으로부터 실제적인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다.

2. 마음의 '태도'가 전부이다 -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

[빌립보서 4:6-7]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 영적인 일은 실제적이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 또한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다.

(2) 우리의 혼의 영역을 마비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표이다. (마음과 생각)

-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
- 마음을 공격하고 불안정한 마음으로부터 불안한 생각을 하게한다. 그리고나서 마지막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한다
: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다이다. 성경에 보면 가롯유다의 마음으로 사탄이 공격했다고 기록한다.

[누가복음 22:3]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3) 평강이 깨진 상태가 문제이다.

평강은 영적인 것이다. 마음의 공격은 구체적으로 평강이 깨진 것을 말하며,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잘못되어 있다

(4)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한다 (영적 공간 확보하기)

* **기도와 간구의 삶** : 문제로부터 나오는 삶,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삶,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오면 먼저 기도한다. 기도는 나에게 집중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남을 보면 에너지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보면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것이다

(5) 힘을 빼앗기지 않는 태도

* **감사함의 태도** : 감사는 영적인 기도와 간구가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말한다. 영적인 일의 활성화는 감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한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한다.

(6) 감사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총안에 있는 단계이다 - '합리적 태도가 전부?'

하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이다. 합리적 태도로 돌변한다. 모든 이성과 합리성으로 나의 단계를 합리화 시킨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기인한 물리적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 감사 (은혜의 상태)를 말한다.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 또한 태도의 문제이다.

(7) '태도' 는 결정된 마음상태,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말한다.

[시편 57:7-8] 7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8 내 영혼아, 깨어나라. 거문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시편 기자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마음의 태도의 변화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공간을 확보한다. 바로 그 때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확정된 마음, 주님을 향해 고정된 마음의 상태가 된다.

(8) ‘태도’ 는 의지를 움직이게 한다.

‘태도가 전부’ 이다 - 성경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 ‘의지’ 를 사용하라. 의지를 다루는 단계!!!

(9) 결국 사단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의지는 행동을 움직이게 하며, 영적인 영역을 움직이는 열쇠가 된다.

*** 사탄의 공격 : 마음의 태도를 무너뜨리는 일**

- 질문을 던진다 : 하나님의 확실한 일에 대한 나의 궤도를 변경하는 일.
- 마음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변화 시킨다. 탐심을 준다. 마음의 태도로 인해 의지가 움직이는 단계이다.
- 결국 자유의지를 통해 ‘내’ 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게 한다.

3. 스스로 한계를 결정하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신앙의 보편적 상태는 ‘스스로 한계를 정한 신앙’ 을 말한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스스로 한계를 정한 신앙에는 어떤 진보도 없다. 신앙은 ‘유지’가 아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더 깊어 지는 것이다. 더 넓어 지는 것이다. 크레센도 되는 것이며 증가하는 것이다.

(1)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갈망이 없다면 언제나 갈등한다

(2) 나는 무엇때문에 사는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갈등한다

(3) 정말 예배인가? 정말 선교인가?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이 질문의 내용은 분명하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4)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질문

(5)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은 증가 하고 있는가? 멈추어 있는가? 만약 멈추어 있다면 무엇인 문제인가?

(6) ‘의지’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인간의 의지는 ‘마음의 중심’을 말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결국 의지는 마음의 소원에 대한 문제이며, 결국 ‘믿음’의 문제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